

# 정읍시,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박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해 31명 선발 정착금·영농자금 지원 소득불안 해소·농지 등 영농기반 확보로 청년인구 유입 구상

정읍시가 청년창업농을 선정하고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농의 영농기반을 조성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월 31일까지 총 59명이 지원했

으며 3월까지 서면평가와 면접평가,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 31명을 선발하게 됐다. 선정된 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으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1년 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된다. 또 최대 3억원까지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영농기반을 조성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시는 영농기술과 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으로 농업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 사업은 만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

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읍시는 지난해 27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한 산업이지만 농촌의 현실은 청년농업인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의 교육시스템과 4-H 및 강소농 등 학습단체 활동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 조선왕조실록을 습기와 총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포쇄 재현 행사'가 지난 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렸다. 조선시대에는 장마철을 피해 봄이나 가을의 맑은 날을 택해 바람을 쐬고 햇볕에 말리는 실록 포쇄를 3년 혹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전주시 제공>

##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발족

### 9개 분야 전문가 20명 구성 개발사업 효율적 대응

군산시가 공공주도 새만금개발사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군산새만금발전협의회'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9개 분야(인문사회·산업경제·도시개발·관광·농업·어업·환경·인문·정치행정)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논리 개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 모색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새만금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농어업 관련 정부 정책 대안 제언 등으로 새만금정책 방향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

게 된다. 시는 협의회 발족으로 다양한 새만금사업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등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특별법 개정,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새만금개발청의 이전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전주시, 미세먼지 회피 '쉽터형 시내버스 승강장'

### 연말까지 7억2000만원 투입 13개소에 추가 설치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고하고자 쉽터형 시내버스 승강장을 확대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정부 예산 1억20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회피 및 쉽터형 시내버스 승강

장'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와 차량 매연 등에 직접 노출되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회피 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구상됐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올해 사업 대상지는 팔복예술공장과 전북은행, 전주종합경기장, 사대부고사거리, 전북도청, 송천센터파크 등 인근 승강장 13개소다. 이 곳은 버스 이용객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이 승강장에는 장애인 알람벨과 공기청정기, 미니도서관, 음수대, 탄소발열의자, 에어커튼 등이 설치된다.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복합 쉽터형 승강장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건설공사 현장 감사 9~14일 21곳 대상 실시

익산시가 시민불편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기간은 9일부터 14일까지다. 감사 대상은 2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건설(건축)공사장 21곳이다. 현장감사는 도로굴착이나 연면적 1000㎡ 이상 공장신축 현장들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시는 이들 현장에 대상으로 안전대책 적정시행과 소음·비산먼지 등 시민불편사항 발생 여부, 도로 복구지역 침하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을 점검한다. 또 교통통제 요원 미배치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공사 진척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 예방조치, 기타 공사 시행 관련 민원발생 가능 여부 등을 감사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감사를 통해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신안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대폭 확충

### 올들어新安군 수협·新安천사김 등 기부금 줄이어

(재)신안군장학재단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대폭 확충 운영 할 방침이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등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는 25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신안출신 학생들의 장학 속소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신안군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라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과 출향 기업체들의 고향사랑 인재육성 기부금도 줄을 잇고 있는 추세이다.

육성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군수가 군정 핵심 중 인재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56명, 대학교 23명 등 총 12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을 안겨주었다. 군민들은 “우리 군에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동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움을 포기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인재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군 방침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학재단은 기금을 62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 기탁 할 경우 기탁자의 뜻을 반영해 장학생 선발과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개인 기탁자가 희망 할 경우 3000만원 이상 기금이 조성 될 때까지 약정제를 도입했다. 또 500만원 이상 기탁자는 기탁 금액과 기탁자를 명판에 새겨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장학금 기부활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이처럼 출향 인사들이 신안 지역 인재



## 함평군, 예비 귀농인 '체류형 테마학교' 시행

### 나비축제 기간 도시 소비자·지역향우 대상 맞춤 교육

함평군이 인구 유입 정책으로 추진하는 체류형 테마학교가 함평나비축제 기간에 시행된다. 체류형 테마학교는 도시 소비자, 지역향우 등 예비 귀농인에게 농업과 지역문화, 관광, 예술이 접목된 테마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함평나비축제 기간을 활용 최근 재광함평군향우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과 가공을 체험하는 체류형 테마학교를 운영했다. <사진> 올해 처음 시작된 만큼 사업취지와 귀농귀촌지로서 함평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

촌시책도 홍보했다. 체류형 테마학교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며 연간 10여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속히 조성하고, 지역 음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플라워푸드 교육장도 올해 연말까지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체류형 테마학교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다”며 “인구 유입과 미래 농업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매매 - 1억 4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

- 3.3㎡당 25만원,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